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으면 의외로도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기 마련이어서 과학자는 극히 드물다.

과학을 어린 학생들의 꿈과 환상이 믹서된 하나의 이상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학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만큼 호기심의 대상이란 뜻과도 통하지만, 그 호기심 자체가 바로 과학에 입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풍토는 호기심 많은 장래의 과학도들을 길러낼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다.

흔히 「과학의 생활화」 또는 「과학적인 생활」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또 극도로 자주 대하게 된다. 말이야 백번 옳은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어른들 자신이 과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과학자가 되겠다면 호 못해 하고 대견스럽게 여긴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즐겁다.

하지만 그 뒷말은 그리 개운치가 않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과학에 대한 무지로 자녀들의 호기심에 불을 당겨 줄수 없다는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이다.

어른들은 평소 대부분 과학의 토막 상식조차 알지 못하고 또 과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과학의 생활화를 함부로 말한다. 어설픈 아이로니가 아닐수 없다.

어린 과학도들의 꿈을 현실로 연결시켜 주려면 먼저 어른들이 반성하여 꿈을 지켜 주고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한 풍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학생때의 어린 과학자는 중학교에 들어와 과학과는 먼 거리에 놓여지고 만다. 실질적인 과학의

생활화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증명해 주는 실례가 아닐까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마리 퀴리 부인은 자신의 연구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남다른 점을 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길 수(교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음)없다 하여 자신을 포함한 몇이서 그룹을 짜 돌아

科 道 学 德 의 性

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그리하여 그녀의 딸 이렌느는 폴리오와 결혼한 후 1934년 공동으로 인공 방사능을 발견하여 이듬해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어릴때부터 과학이 생활화되어 있었기에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리라 생각하니,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를 깨닫게 된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33회 세계청소년 과학기술전에서 우리나라의

이종업(경남 밀양고교 재학)군이 「물방울을 이용한 액체 기둥의 공명에 관한 연구」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다.

우리의 어린 두뇌들이 타국의 어린 두뇌들과 겨뤄 얻은 수확이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항용. 자신있게 일컬어지는 말 중에 우리 민



崔 凡 棲
(小說家)

족의 두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어느 나라와 무엇을 겨뤄도 두각을 나타내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뇌의 개발을 위해서 전제되는 게 꼭 한 가지가 있다. 다름아닌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두뇌의 개발이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어느 분야에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과학자에게 더 요구되는 건 도덕성일게다.

그 한가지 예로 노벨의 숭고한 뜻에서 알 수 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했으나 그것이 잘못 쓰여져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이용되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인류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노벨상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과학자의 도덕성을 행동으로 대변한 좋은 예이다.

이 세상에 만약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자가 많아,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발명품만을 만들어 낸다고 상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기의 새로운 발명과 개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놓고 그 숲에 싸여 살다니, 이것은 과학의 도덕성과도 결부된 일이다.

이토록 과학자의 도덕성은 인류의 미래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의 결여로 각 분야마다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제 정신이 아닌 듯 별의별 대형 사건과 사고가 꼬리를 이어 터지고 있다.

그래서 도덕의 재무장이네, 사회 정화네 하는 말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참으로 두렵고 통탄할 사회 현상이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도덕성을 기르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과학자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정신이 뚜렷한 자기 철학의 기틀 밑에 확고히 굳어지고, 그럼으로써 인류의 문명을 더욱 밝고 맑게 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과학자를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 과학자들의 꿈과 호기심을 길러주고 그 위에 올바른 도덕성을 심어 주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